

## 새 천년의 한·일 교류를 위하여

김 학 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협력부

**한** 국원산과 일본원산이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가 금년도에 21회째를 맞이하여 한국측 원자력 관계자 140여명과 일본측 관계자 25명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각각 12편과 16편 등 총 28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논문 분야는 양국간 현안 관심 분야인 원전의 운영 기술 분야, 핵연료 주기의 기술 개발 분야, 원자력산업의 주변 환경 변화와 국민 이해 분야 등 3개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양국간 원자력 관계자들간의 보다 많은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한·일 세미나는 10월 초순경 일본 도카이무라 지방의 핵연료 관련 회사인 JCO사에서 발생한 사

고 여파로 인해 일부 국내 원자력 관련자로부터 금년도 한·일 세미나의 개최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던 만큼 미묘한 시기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양국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개최 전 일본에서의 사고 여파로 일본측 대표단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일본원자력산업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세미나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매년 한·일 세미나는 한국측의 주도적인 역할로 시작되는 게 관계인 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월경 한국측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측에서 발표될 논문 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 세션을 구성하였다.

특히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각 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열의 속에 일

본측에 보다 많은 발표 논문 배정을 요청하여 한국측에서 일본의 원자력 관련 기술 현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국민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일 세미나가 시작된 79년 이래 최초로 한·일 양국간 여성도임측에서 논문 발표를 하는 등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28편의 논문은 양국의 관심 분야였고 또 논문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발생한 일본의 원전 연료 사고 현황과 원자력의 홍보에 대한 여성 단체의 활동 사항에 대해 양국 참석자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양국이 깊이 공감하는 계기

가 되었으며, 또한 홍보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세미나 후 일본 대표단 일행은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였다. 10월 20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원자력연료(주)를 방문하였고, 21일에는 울산 원자력발전소, 22일에는 한국중공업(주)를 방문하였다.

매일 버스로 4~5시간 정도의 장거리를 이동하는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문 기관에서의 일본 대표단 일행에 대한 응수한 대접과 친절한 응대로 일본측 일행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가운데 모든 산업 시찰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빌어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세미나 개최 직전 한국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에는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 하늘도 이번 행사를 돕는 듯 하였다. 덕분에 일본측 담당자의 감기도 그가 출국할 때는 이미 다 나아진 모습을 볼 때 한국의 따뜻한 선물을 준 것 같아 흠족하였다.

일본 대표단 일행의 산업 시찰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의 준비 자세이다. 일본측 담당 기관인 일본 원자력산업회의에서 준비한 자료에

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자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 현황과 정책 방향, 국내 관련 기관에 대해 상세히 조사된 자료, 주요 내용에 대한 신문 스크랩 등 일본 특유의 철저한 준비성을 엿볼 수 있었다.

사전에 준비된 방문 기관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각자가 추가로 보고 얻은 정보 자료 등을 보완한다면 보다 쉽게 상대 기관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본원산의 준비성은 철저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대표단의 해외 시찰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각 기관을 시찰한 후 숙소로 돌아오는 차내에서 일본 대표단은 매번 각자가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발표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인들의 사후 정리하는 자세, 수집된 정보의 축적, 활용 능력 등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측에서도 타국과의 세미나 또는 산업 시찰시 이와 같은 사전 준비성과 함께 수집된 자료를 정리·활용하는 습관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한·일 세미나가 단순한 일과성의 행사가 아닌 보다 국내 원자력 관계에 도움되는 유익한 세미나가 되도록 하자는 의욕을 갖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는가는 평가해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상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세미나로 개최되는 것이 이상적이면서 또한 효과적인지에 대한 많은 창의적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동안 21회의 세미나가 양국 원자력산업계에 어떤 실익을 남겼는가 하는 점과 앞으로 본 한·일 세미나의 개최 형태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려 사항은 앞으로 토의를 거쳐 새롭게 2000년도에 개최되는 한·일 세미나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한·일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 관계자 여러분과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논문 발표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한·일 논문 발표자들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미나의 구성을 위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련 기관의 관계자분들과 한국측 준비위원장으로 끝까지 열의를 다하신 서인석 박사님, 또한 산업 시찰시 방문 기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준 각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밖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